

제주바다에 고래상어가... 열대 서식종 속속 출현

지난달 30일 애월읍 앞바다서 4-5m 고래상어 목격
서귀포서 멸종위기종 ‘부채가오리’ 추정 해양생물도
“수온 상승으로 열대종 출현 늘어... 먹이 찾아 이동”

최근 제주 앞바다에서 멸종위기종인 고래상어가 목격되는 등 열대·아열대성 해양생물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다.

2일 남서해협 선박 승룡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8시 30분쯤 제주시 애월읍 앞바다에서 한치 낚시 체험 도중 고래상어가 발견됐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는 고래상어가 어선 아래를 천천히 유영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등 위에 박힌 흰 점들이 눈에 띄었고, 몸길이는 약 4~5m로 추정됐다.

고래상어는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의 적색 목록 중 위기(EN) 등급으로 지정된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이다. 성체의 몸길이는 약 6~12m로, 개체에 따라 더 크게 자라기도 한다.

큰 몸집과 달리 성격이 온순해 위협적이지 않은 해양생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또 플랑크톤과 작은 물고기, 크릴 등을 섭취한다. 주요 서식지는 열대·아열대 바다로 필리핀,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에서 자주 발견된다. 국내 해역에서는 아주 드물게 발견되는 종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3시쯤 서



지난달 30일 제주시 애월읍 앞바다에서 발견된 고래상어.

귀포시 법환동 범섬 인근 해역에서는 부채가오리로 추정되는 대형 가오리가 발견됐다.

스쿠버다이빙 업체 탈라 다이브에

따르면 발견된 부채가오리는 길이 약 3m에 달하며 제주 해역에서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 희귀한 해양생물이다. 어두운 몸체 위로 검은색 점들이 무늬처럼 박힌 것이 특징이다.

주로 인도-태평양 해역 내 따뜻한 바다에 서식하는 부채가오리 또한 IUCN이 멸종위기등급 ‘취약(VU)’으로 지정한 해양생물이다.

김병엽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교수는 “제주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플랑크톤 같은 먹이들이 풍부하게 조성돼 열대·아열대성 해양생물의 출현도 늘어나고 있다”며 “다만 고래는 먹이와 번식을 위해 장거리를 이동(회유)하는 습성이 있어 이번 출현의 원인이 기후변화와 직결됐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양유리기자

오늘의 날씨와 생활

7월 3일 금요일 음 5월 19일 (11월)

기상 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 주	60%
30%	성 산	60%
30%	고 산	60%
30%	서귀포	6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 흐리고 비	22/28℃
모레	☁️ 흐리고 비	23/28℃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한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호리고 가끔 비

제주에는 호리고 가끔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1℃, 낮 최고기온은 25-26℃로 예상된다. 당분간 비가 내리겠으며, 바다 안개에 유의해야겠다.

☀️ 해돋이 05:28	🌙 달돋이 22:05
☁️ 해질 19:48	🌙 달질 08:06
🕒 물때 만조 00:47 12:17	🕒 간조 07:18 18:54

☀️ 자외선지수 높음	🌳 산불위험지수 낮음
----------------	----------------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고령장애인들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조사 결과
85%가 희망... 경제적 이유 커

제주지역 고령장애인 10명 중 8명 이상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최근 만 55세 이상 장애인 87명과 도내 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일반사업체 등 27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고령장애인 재고용·파견형 일자리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장애인 85.1%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다. 그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가 41.4%로 가장 높았고 ‘일하는 보람’ (24.2%), ‘건강과 생활 리듬 유지’ (16.2%), ‘사회 참여’ (9.1%) 등 순이었다.

반면 고용을 지속하기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는 ‘건강 문제’가 44.2%로 가장 높았고 ‘적합한 일자리 부족’ (29.5%), ‘이동의 어려움’ (10.5%) 등 순이었다.

또 시니어 일자리 사업 참여 의향과 파견형 일자리 참여 의향은 각각 77%로 나타나 고령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시니어 일자리 확대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줬다. 희망직종은 환경정리, 시설관리, 생산·포장 외에도 문화·예술, 디자인, 바리스타, 서비스직, 운전 등으로 다양했다.

사업체 조사에서는 고령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업체들은 안전문제, 생산성 저하, 인건비 부담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직무지도원·근로지원인 배치, 충분한 휴게시간 제공, 건강·의료 연계 지원, 이동 지원 확대, 직무 재설계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고경희 관장은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시니어 일자리 모델과 파견형 일자리, 건강·의료 연계 지원 체계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단아한 자태 뽐내는 대홍란 2일 제주시 한림읍 금릉해수욕장 인근 숲에서 대홍란(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이 분홍색 꽃망울을 터뜨려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강희만기자

진보당·마트노조제주 “홈플러스 정상화를”

2일 도의회 도민카페서 촉구
“매각대상 아닌 제주에도 영향”

진보당 제주특별자치도당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일 “정부와 여당은 홈플러스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을 앞두고 이날 제주시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점유율 2위였던 홈플러스의 몰락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약탈적 차입매수, 무분별한 자산 매각, 수조원대 배당잔치가 불러온 금융 투기의 결과물이며 자본의 탐욕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노동자들의 피눈물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제주에 있는 홈플러스 서귀포점은 매각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 홈플러스와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제주감귤농협에서 약 20억원 규모의 제주감

귤을 납품받았으나 현재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지역 일선 농가와 소상공인들의 직격탄을 맞은 상황으로, 대기업의 경영 실패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약탈적 침탈 피해가 매각 대상이 아닌 홈플러스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MBK는 청산공모를 중단하고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긴급자금을 수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소정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여성인재 양성의 요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신성학원

2026 자랑스러운 신성인상 수상자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신성학원총동문회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봉사 등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며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 모교의 명예와 긍지를 빛낸 동문을 대상으로 제4회 ‘자랑스러운 신성인상’을 시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후보자를 찾습니다.

후보자격

신성여자중학교 또는 신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동문

접수기간

2026년 7월 1일 ~ 2026년 8월 10일 18시 까지

추천자격	1. 각 회기별 동창회장 2. 학교장(신성여자중학교/신성여자고등학교장) 3. 재경회장 4. 동창회가 구성되지 않은 회기에서 후보자가 있을 때는 국내에 거주하는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	접수방법	1. 한글파일 이메일 접수 (oej0220@naver.com)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	1. 추천서, 공적조서, 동의서 각 1부 (별지 1, 2, 4, 6호 서식 참고) 2. 신성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s://shinseong.jje.hs.kr 커뮤니티(총동문회)란 참고	선정방법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및 수상자 결정
		시 상	1. 시상일시 : 10월 5일(월) 신성학원총동문회 특별추진 행사시 2. 시상인원 : 1명 3. 시상내역 : 상장과 부상

문의

T. 064)729-7303
신성여자고등학교 / 신성학원총동문회 교육부

2026년 7월

신성학원총동문회 29대 회장 고금희